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광주 · 전남 · 전북건축사회

News 2010.09

010호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T 062.521.0025 F 528.0026



秋夕



815



宇



시론

'미술대전' 으로부터 '건축대전' 으로_윤대환
자연이 주는 행복_이난경

건축과 도시

새로운 도시만들기와 광주_이명규

건축과 도시디자인

도시디자인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_조용준

전통건축

전남지방의 전통주거건축_천득염

그리스 터키 여행기

터키의 건축문화 탐방을 다녀와서_이순미

설계경기

노벨평화상 기념관 건축설계 및 전시를 제작·설치 제안 공모

인터뷰

광주건축사회 '제1기 건축사 Academy' 초대 원장 류연창 건축사
건축사 Academy 지성강좌 - 송효상 건축사 '당과 건축'

광주비엔날레 & 아트페어

광주비엔날레 66일간의 장정에 돌입하다!
광주 첫 아트페어 '2010 아트광주' 열려

대학소개

우석대학교 건축·인테리어디자인학과

전북건축사회 창립 45주년 기념 "건축문화축제"



autumn



'미술대전'으로부터 '건축대전'으로

자연이 주는 행복



윤대한 교수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지금으로부터 28년 전인 1982년, 1949년부터 30여 년 동안 정부주관으로 동양화, 서양화, 조각, 공예, 서예, 사진, 건축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공모전으로 약칭 '국전(國展)'으로 불렸던 '대한민국미술전람회'가 한국문

화예술문예진흥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미술대전'으로 개편되었다. (현재는 한국미술협회가 주관) 이 때 사진은 한국사진작가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사진대전'으로, 건축은 한국건축가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건축대전'으로 독립하였고 올해로 제29회를 맞이하고 있다. 건축관련 공모전은 계속해서 그 수가 늘어나 현재 전문성 있는 다양한 성격의 공모전들이 각종 단체, 지자체, 기업들의 주관으로 열리고 있다.

여러 분야들이 공모전에서 각각의 독자성을 구축해 가고 있는 추세 속에서, 몇몇 지자체에서의 건축분야는 이미 독자적인 [건축대전] 형식으로 행사를 치르면서 이를 통해 지역의 건축 역량을 키워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의 건축공모전은 '광주광역시미술대전'과 '전라남도미술대전'의 틀 속에 포함되어 올해로 각각 제23회와 제46회를 맞이하였다. 공모전으로서 짧은 연륜은 아니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구조적인 한계 속에서 독자적인 운영을 통한 건축발전을 모색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나름대로의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미술대전에 종속되어 그동안 보여준 우리 지역의 건축공모전의 결과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매년의 형식적인 행사 치르며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특히 참가자들 거의 대부분이 대학생들인 현실에서 공모전 일정은 대학 학사 일정이 고려되지 못하였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다. 정말 그럴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 우리 지역의 건축공모전도 '미술대전'으로부터 나와 독자적인 '건축대전'으로 새롭게 발전해야 한다.

'건축대전'이라는 독립된 공모전 운영체제를 통해, 우리는 이 지역에서 건축의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고 탐구할 수 있는 새로운 장(場)을 펼칠 수 있고, 보다 경쟁력 있는 예비건축가들을 길러낼 수 있고, 광보전 주제를 통해 지역의 건축 및 도시 문화 발전에 참신하면서 깊이 있는 건축적 아이디어나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아이디어를 지역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건축대전'이 기존의 [광주건축·도시문화제]의 주요 행사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새로운 입장에서 [광주비엔날레]와 [디자인비엔날레]와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면서 미술 분야와의 통섭과 융합을 모색한다면, 우리는 건축대전 행사가 지역 문화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야기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12년 전 대학을 통해 광주와 처음 인연을 맺을 때에도 회자되고 있었다. 그 때로부터 변화없이 10여 년이 지났다. 또 이 상태로 또 10년이 지나갈 것인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어려움을 내재하고 있는 시기에, 그럴수록 공부하고 건축의 본질을 탐구했던 건축가 루이스 칸(Louis Kahn)이 새롭게 생각한다. 보다 본질적인 건축문제에 접근할 수 있고, 지역의 건축 역량을 키울 수 있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장(場)'으로서 이 지역의 독립된 '건축대전'을 기대해 본다.



이난경 교수
광주여자대학교 미술치료학과

요즘 제주도를 배경으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가 있다.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다기에 비행기 값 안들이고 공짜로 눈 호강이나 하자 싶어 보기 시작한 것이, 드라마를 잘 보지 않는 나도 어느덧 첫 회부터 지금까지 쭉 챙겨보게 만드는 매력이 있다. 김수현 작가의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이 드라마는 상대가 함께 모여 사는 대가족을 중심으로 그 들의 삶과 사랑의 일상을 아름다운 제주도의 풍광을 배경으로 잔잔하게 그리고 있다. 등장인물 하나하나의 캐릭터가 개성이 있고 아픔을 한 가지씩 가지고 있지만 서로를 치유하고 함께 아픔을 헤쳐나가는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줘 막장 드라마와는 다른 재미와 의미를 일깨워 준다.

그런데 드라마를 보다보니 왜 하필 배경을 제주도로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단지 아름다운 데이트 코스가 필요해 제주도를 선택하지는 않았을 텐데, 작가는 어떤 의도로 제주도를 배경으로 선택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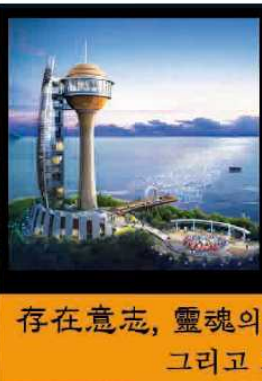
현대인은 도시화, 물질화된 경쟁사회에서 피곤한 삶을 살고 있다. 특히 한국은 경제적 기적을 이뤄낸 만큼의 사회적 병폐와 스트레스가 심각하다. 영국 신경제재단이 기대수명, 삶의 만족도, 환경지수 등을 평가한 2010년 행복지수 조사에서 한국은 68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어린이행복지수에서도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한다. 이러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행복은 물질적 풍요와 비례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행복지수 상위 국가들은 행복의 기본적인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는 정신적 조건으로, 비록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는 않지만 가족, 친구와의 끈끈한 인간관계에 안정을 느끼며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환경적 조건으로, 그들은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 순응하며 심리적 풍요로움을 느끼며 행복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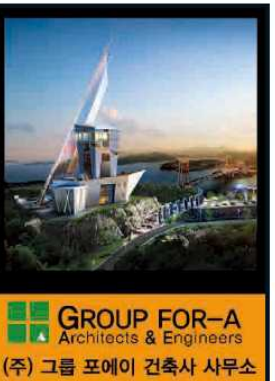
한국인의 낮은 행복지수를 보며 드라마의 내용을 들여다보니 작가가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아름다운 대자연 앞에서는 인간의 욕심도 희노애락도 하찮은 것이어서... 동성애자 아들이든, 협을 다섯 톨 할아버지든, 결혼가족의 아픔이든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포용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제주도의 풍광 속에서 더욱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메시지를 인생의 황혼에 선 노인작가는 전하고 싶었던 것 이리라.

얼마 전 오은선 칸첸중가 등정의 진실 공방에서 상업주의에 물 든 산악인의 모습과 탐욕스런 언론과 정치가 순수한 산악정신을 파괴하는 모습을 보았다. 신성한 히말라야도 극성스런 한국인의 욕심 앞에서는 당할 재간 없는 것 같다. 그 모습을 보니 국내의 현 상황들이 오버랩 되면서 우리의 행복지수는 더 떨어질 거란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우리는 삶의 재충전을 위해 자연을 찾는다. 순수한 자연은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힘이 있다. 순수하고 때 묻지 않을수록 치유력은 더 높다. 자연으로부터 멀어지는 도시인의 삶에 도심 속의 자연환경 조성은 인간을 위한 행복의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도심재생이나 재개발에서도 자연환경의 조성은 시민들의 만족도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자연이 있어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니까.







存在意志, 靈魂의 建築

그리고 그 詩的인 始作



(주) 그룹 포에이 건축사 사무소

대표이사/건축사 박 동 준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200-109
 for.a@hanmail.net
 TEL. 062) 366-8404
 FAX. 062) 366-8406

-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
- BTL & Turn Key
- 도시환경 조형물

새로운 도시만들기와 광주

일곱 번째 이야기 : 미국의 시애틀

이명규 교수
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1. 첫번째 이야기 - 도시(City)
(2010년 3월호에 기재)
2. 두번째 이야기 - 광주의 공간발달사
(2010년 4월호에 기재)
3. 세번째 이야기 - 광주의 시가지계획
(2010년 5월호에 기재)
4. 네번째 이야기 - 싱가포르
(2010년 6월호에 기재)
5. 다섯번째 이야기 - 브라질의 '푸리피바'
(2010년 7월호에 기재)
6. 여섯번째 이야기 - 캐나다의 '밴쿠버'
(2010년 8월호에 기재)

시민참여의 대표적인 모델 도시 : 시애틀(Seattle)

시애틀은 미국 워싱턴주의 대표되는 도시로 인구는 약 175만명 정도이며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둘러싸여져 있다. 사실 시애틀하면 먼저 떠오른 이미지는 1993년에 톰 행크스와 맥 라이언이 주연한 영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Sleepless In Seattle)'이 아닌가 한다. 또한 스타벅스커피숍이 처음 시작된 곳으로 지금도 퍼블리 마켓(Public Market)에 있는 제1호점에 가면, 수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방문하고 기념으로 사진을 찍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시애틀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게 된 것은 미국 보잉사의 본사가 있으며 비행기를 만든다는 사실보다는 정보산업을 선도하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본사가 이곳에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런 연유로 인해 시애틀에는 밤낮을 불구하고 수많은 정보산업 전문가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영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의 영화포스터

그러나 도시계획가들에게는 이러한 이미지보다 시민참여에 의한 새로운 도시만들기의 미국을 대표하는 모델도시로서 더 유명하다. 그래서 새로운 도시계획제도과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자 많은 전문가들이 방문하고 있다.



시애틀의 상징인 스타벅스 커피숍 제1호점

시민참여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 Seattle's Plan

시애틀의 도시기본계획이 여타의 기본계획과 다른 점은 수립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시민참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점은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마을단위를 기본으로 마을계획을 수립하여 그 바탕위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독특한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전체에 대한 개발방향을 정하되 그 기본이 되는 핵심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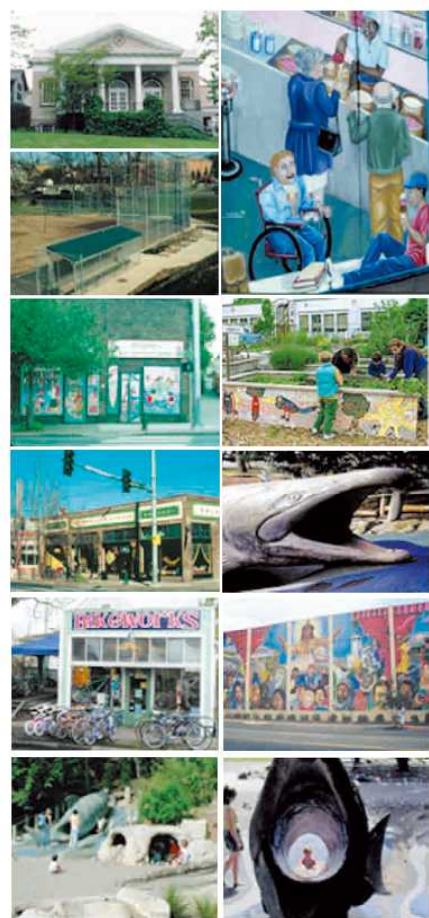
마을계획이고 마을계획은 자연스럽게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단 모든 마을이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고 성장모리를 필요로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마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시애틀의 경우 도시센터(urban center)와 도시마을(urban village)을 지정하여 마을계획을 수립하였다. 한편 시애틀의 도시기본계획은 매년 부분 수정을 거치고 10년 간격으로 전체 수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 도시기본계획이 융통성이 크며 정책계획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는 다른 점이다.

시민을 위한 계획과 기구 마을계획(neighborhood plan) 마을국(department of neighborhood) 마을만들기 기금(neighborhood fund)



시애틀시청 내 마을국의 안내 표지

시애틀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 마을단위로 마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이 아닌가 한다. 마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대상으로 선정된 마을은 시에서 10,000불의 지원금을 받게 되고 마을 자체적으로 건축가 등에게 의뢰하여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마을계획의 수립을 의뢰받은 건축가는 매우 실질적이고 구



주민이 주도가 되어 조성된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아래의 고래가 보이는 공원은 주민의 제안으로 만들어 졌다고 한다.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모습으로 건축가가 중심이 되어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시애틀시청 내 마을국의 안내 표지

체적으로 마을문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그리고 마을계획을 수립하면서 시민참여는 구조가 아닌 실행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며 계획에 대한 신뢰와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시민들은 마을의 문제에 대해 직접 참여하면서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이는 시에서 조성한 마을만들기 기금에서 마을단위의 사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마을만들기 계획을 시에 제출하여 선정되면 마을만들기 기금을 받아 공원조성, 가로수심기 등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직접 참여하여 펼쳐 나갈 수 있다.

마을만들기사업은 매칭펀드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주민들은 인건비를 매칭펀드로 하여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시애틀에서는 이러한 주민참여를 총체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마을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애틀은 소시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을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며 여기서는 여권을 발급받는 것이 가능하다. 시애틀은 미국에서도 가장 시민참여가 활발하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임에는 틀림없다고 하겠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도시디자인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조용준 교수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이번 호에는 건축과 도시디자인이란 지면을 개설하여 도시설계와 도시주거학, 건축설계 전문가인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조용준 교수의 '도시디자인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란 주제의 원고를 통해 건축과 도시디자인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도록 한다.

어제, 근대도시의 비판으로서 도시디자인

역사적으로 볼 때, 건축과 도시계획은 하나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20세기 초에 나타난 산업적·기능적 합리성을 위한 분업화는 도시에도 영향을 미쳐 도시의 토지이용계획과 건축설계를 자동차의 생산라인처럼 분리하는 분업화를 정착시켰다. 특히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과 환경악화를 제어하고, 양질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역사도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법인 기능적 도시권이 필요하다는 아테네 헌장 이후 건축과 도시계획은 각기의 계획이론과 방법론을 더욱 확고히 하였다.

그러나 20세기 중반부터 기능적 도시는 전통과의 단절은 물론, 도시의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경시했을 뿐만 아니라, 도시를 혼란스럽게 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한국도시설계학회). 곁에서 즐거운 도시라야 살고 싶은 도시이고, 이는 토지이용이 거대하게 단일화 돼버린 살풍경의 도시가 아닌, 세심하게 배려된 인간 냄새가 나는 도시인데(강병기), 근대 건축과 도시계획은 각기의 기능만을 강조함으로써, 건전한 개개가 모인 사회가 건전한 공동사회가 된다는 논리를 소홀히 한 것이다.

이 결과 도시미(美) 상실은 물론, 공공공간의 빈곤, 역사자산의 소홀, 그리운(자연·환경·대지)과 피규어(인간·살·건축물)가 부조화 된 살풍경의 도시들이 탄생되었다. 이는 아테네 헌장의 건설과 방법론은 기능주의적 선언이기 때문에 이를 쫓아 각기의 기능만을 표현 하게 되면, 도시는 혼란상태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되어 새로운 조치가 필요(전조 단계) 하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건축과 도시의 관계를 근대 도시구조의 구성 원리인 나무구조가 아닌, 도시를 구성하는 각 단위들이 부분으로서 가치와 동시에 또 다른 부분의 집합으로서 작용하는 세미 레티스 구조(semi lattice structure)로 해석(크리스토퍼 알렉산더) 하는 등, 도시를 단순히 건축물의 산술적 집합관계가 아닌, 부분과 전체의 관계로 재해석(노베르코 슐츠) 하기 시작했는데, 이의 도달점은 도시디자인이었다. 이처럼 도시 디자인은 근대건축과 도시계획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하나의 영역에서 해결하고자 하는데서 출발하였는데, 특히 고도성장을 거치면서 대규모개발을 통해 도시도전을 경험한 선진국가 건축사들이 터득한 새로운 가치이자, 필요성이었다.

오늘, 도시매니지먼트로서의 도시 디자인

도시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건축 등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3차원의 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공간에 대한 구체적 형태의 권리나 주장을 조정하고 집합화하는 역할을 한다. 도시계획은 공공이익과



주거지 디자인 매니지먼트 예 (지중해)

환경보호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일 그림인 반면, 건축은 필지와 관련된 극히 미시적인 어휘와 문법을 가지고 접근하는 결과를 이다.

따라서 도시디자인은 이들 사이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하도록 함과 동시에, 한 지역의 환경을 기능적 측면과 형태적 측면까지를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제이다(한국도시설계학회). 이는 공간계획과 디자인의 결합을 통하여 도시를 도시답게 하는 것이 건축이고, 건축을 건축답게 하는 것이 도시(조대성)라는 평범한 사실의 재 실현이다.

만약 근대에서처럼 각기 주장만을 하게 되면 개개주장이 아무리 다양성과 창조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는 혼란이라는 확일성이 빠지게 된다(오노 히데오 시, 건축사). 즉 근대건축은 그 자체로서 매력적이거나 흥미를 유발하지 몰라도 그것들이 누적되어 나타난 효과는 실망을 주었기 때문에 전체를 묶는 이른바 총화로서 맥락과 대조, 보존, 공공공간(리처드 헷만, 도시설계)등의 창출 역할을 부여 받은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한 도시디자인은 대규모 건축물, 건축군, 가로경관, 공공공간 정비, 도시비전, 도시구조, 도시정책, 도시비평(倉田直道, 건축사)을 영역으로 한다. 이는 대상과 기법에 따라서 점이나 면적 디자인인 아웃 포스트 디자인과 건축디자인을 하지 않고 도시를 디자인 한다는(조난단 바넷,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수) 프로세스 디자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니시무라 유키오, 도쿄대학 교수), 마스터 아키텍트는 후자에 속한다.

거기에 최근 도시에 대한 지향성이 땅의 용도와 목적을 다루는 평면 도시계획에서 형태나 공간의 문제를 다루는 형태도시계획으로 바뀌면서 도시를 매니지먼트하는 역할까지로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현대도시에서 도시디자인의 역할은 다양함에도, 아직 많은 도시에서는 도시디자인이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를 만들어 내지 못한 채, 감각적 테크닉을 통한 도시외관 화장에만 주력하여, 또 다른 혼란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더구나 도시디자인은 건축의 존재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건축과 가장 가까이 있는데도, 적지 않은 건축인들은 건축과 무관한 영역으로까지 인식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도시디자인 좌표이다.



건축과 도시의 통합 예 (그랑도모)

내일, 도시공간을 재편하는 공공체로서 도시 디자인

20세기 말부터 자동차 중심의 도시외곽 개발은 기성시가지의 공동화는 물론, 도시문화를 무수하게 파괴하고, 도시사회의 결속을 훼손하고, 공공공간의 질을 말살하고, 공기를 오염 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리처드 로저스, 건축사). 이와 함께 도시의 지향점도 그간 급격한 도시화시대에 인구증가와 고용증대를 기대하고 대규모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도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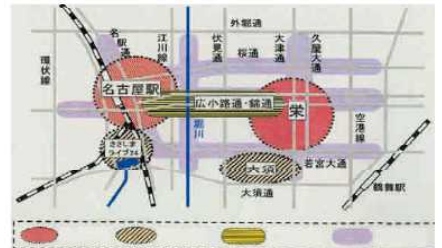
용도의 혼합 예 (행복도시)



도심 재생계획 예 (도 오노시테도시)

곽을 확장하는 방식 대신에 기존에 만들어진 도시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풍요로운 도시생활을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되면서(니시무라 유키오) 도시디자인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특히 앞으로 도시디자인은 도시 전체상 속에서 합리성이나 효율성을 중시하는 기능적 관점에서 벗어나 공간, 시간, 인간이라는 자산을 바탕으로 창조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성시가지 재생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가타자와 다케루, 전 도쿄대 교수). 뉴욕의 도심재생, 타임 스퀘어 재생, 시카고 M 지역의 민간도시재생, 밀워키의 리버워크 재생, 세인트 폴 로우타운지구 재생, 버클리 포스트스트리트 상업개발 등의 선진국 사례를 보면, 공간계획과 디자인의 결합기술의 조정에서 출발한 도시디자인은 점차 집약형 도시구조로의 재편과 이의 거점으로서 기성시가지 재생하는 공공체(가타자와 다케루)나 공공정책(조난단 바넷)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이에 따라 도시디자인 역할도 도시가 갖고 있는 자원의 재평가를 비롯하여, 공공성과 시장성의 밸런스 조정문제, 시민이나 기업의 안정적 환경의 조정문제, 탈대량생산의 혁신적이고 유연한 시스템을 통하여 환경이나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창조적 해결까지로 확대되고 있다.



도심재생 계획 예 (나고야)



도심재생 계획 예 (요코하마)

또 시민, 기업이나 전문가, 지자체 등의 다양한 주체가 목적과 수법을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경제, 문화, 사회, 법률, 교통 등 계획이나 전략이 필요한 부분과의 통합이나 협동 역할로 발전하고 있다(가타자와 다케루). 특히 시민의 자유스러운 창조활동 기반위에서 문화와 산업의 창조성을 도시재생에 활용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마사유키 사사키, 도시계획가).



도심재생 계획 예 (나고야)

이는 외형적으로는 영역간의 경계가 허물어져 감을 의미하지만, 최종 목적지에는 여전히 건축의 존재 방식이 있다는 점에서 도시디자인의 본질은 그대로이다. 앞으로 더 좋은 도시를 위한 건축인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대목이다.

전남지방의 전통주거건축

전 특 영 교수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전통건축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난 2010년 4월호(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김지민교수 '21세기 새로운 한옥의 가능성')부터 전통건축 지면을 개설하였으며, 이번에는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전특영교수의 '전남지방의 전통주거건축'에 관한 내용을 게재하고자 한다.

전남지방의 주거건축

전남지역은 비가 많아 다른 지역의 집들에 비해 지붕이 급하고 집이 낮다. 비가 많은데 평평한 지붕은 불리하고 비바람에 건물이 높아서 좋을 게 없다. 바람이 많으면 새끼를 촘촘히 엮어 방비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추운 북쪽지역에 비하여 고온다습한 우리고장의 건축은 개방적이다. 앞이 현히 넓다. 창문이 많고 마루가 필수적이며 간살이 넓다. 창문이 많아야 통풍이 쉽고 폐쇄적인 구들보다는 날문을 깎 마루가 있어야 여름이 시원하다. 마루에 자리를 깔고 누워있으면 부러울 게 없다. 대청마루 앞문은 들어열개문으로 하여 서가래의 걸쇠에 걸치면 대청마루가 바로 마당이 되고 마당이 바로 마루가 되기도 한다. 마당과 대청마루가 서로 관인되어 마루와 마당은 여름철에 거거하는 방이 되기도 한다. 누마루가 발달하여 운조루 등의 주거건축에서 종종건물의 흔적이 나타난다. 전남지역은 농토가 넓어서 생활이 여유롭다. 집도 타 지역에 비해 간살이 넓다. 산보다는 농토가 많다. 돌보다는 흙을 즐겨 쓴다. 토담집이 큰 산 아래에도 많다. 큰 산에는 돌이 많아 돌로 집을 지어야 할 것 같은데 그 예가 없고 오히려 나무와 흙으로 지은 집이 많다.

전남지방의 주거건축의 특징

한국의 전통건축을 가운데 우리지방의 주거건축이 그 양과 질에 있어서 다른 지방에 비하여 돋보인다. 남한전체의 주거건축 문화유산의 절반이 경북지역에 몰려있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의 다시 절반은 전남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남 녹우당

경북지역의 주거건축과 전남지역의 주거건축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비교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경북지역의 주거건축은 '모방형주거'라고 통칭되는 조선중기의 사대부집이 중심이 되며, 여기에 더해 태백산맥의 산곡(山谷) 사이에 자리한 양통집 계열의 집중적 주거가 또 다른 하나의 계열을 이루고 있다. 한편, 전남지역의 주거는 시기적으로는 조선후기, 계층적으로는 부농계층의 주거가 남아있는 건축문화재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 주거

형태상으로도 -자형의 겹집이 분산 배치되어 있는 남부지방형 주거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또한 시원적 주거유형으로 부엌 앞에 모방이 달린 '모방형주거', 폐쇄성이 강한 마루방인 마래를 갖춘 '마래형주거' 및 부엌 건너편으로 방이 들어선 '중앙부엌형 집' 등 도서 및 해안지역 특유의 주거형식들이 일찍부터 학계에 보고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처럼 중상류주거와 서민의 주거형식에서 각각 경북지역과 전남지역은 서로 비교의 대상이 될 만한 짝을 가지고 있다. 다만, 건축문화재로의 지정은 양식적 판단을 우선하며, 또 시기적으로 앞선 것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지정된 건수에 있어서는 경북지역이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게 된다.

전남지방의 주거건축에서 먼저 사례가 많지 않은 전남지역의 모자형 주거로는 윤고산택인 해남의 녹우당과 구례의 운조루를 들 수 있다. 이들은 그 창건주가 각각 서울 및 경북 태생이며, 둘 다 오랜 관직생활을 통해 다양한 지역적 경험을 쌓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창건한 모자형 주거가 전남지역의 전형적이고 지배적인 건축형식은 물론 자생적 건축형식이라고 하기에도 곤란하다. 다만, 개별 건축으로서는 다른 어느 지방에 있는 고급 주거건축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건축 유산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다.



구례 운조루

전남지역의 주거건축은 역시 -자형의 살림채들이 지형에 따라 자연스럽게 배치된 주거가 대표적이다. 다만, 같은 -자형 집이라고 해도 그 단면방향의 분화·발전의 정도에 따라 출집·퇴집·겹집·두줄백이 집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조선후기 집들이 대부분인 지금의 문화재 주택들은 겹집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겹집이란 구조골격은 전후로 뒷간을 가진 전·후퇴집 혹은 전후좌우(前後左右)로 모두 뒷간을 가진 전후좌우 퇴집의 구조를 가지나, 실내공간의 사용에 있어서는 집의 일부부(대체로는 마지막칸)을 전후로 양분하여 상·하방을 두는 집을 말한다. 상·하방을 두는 것은 전통적인 주거건축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것인데, 인체부의 생활공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실내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생겨난 변화로 보여 진다. 이러한 겹집으로의 발전은 짧은 기간에 완성된 것이 아니고, 조선후기에 들어 전후면의 뒷간에 대한 다양한 활용방식이 시도되다가 대체로 19세기에 들어서면서 겹집이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실내공간의 폭 방향 발달이 더 진행되면서 20세기 초반의 주거들에서 보는 것처럼 후면의 뒷간이 온칸과 같거나 비슷한 규모로 커져서 대청 등을 제외한 온돌방 전체가 상·하방으로 구성되는 경우까지로 발전하게 되는 예를 볼 수 있다. 지역에서는 이러한 집들도 겹집으로 통칭되나 평면계획상의 변화를 중시하여, 굳이 구분하자면 두줄백이 집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평면의 분화발전의 경로는 겹집화에 그치지 않는다. 보성의 이금재 가옥과 이용우 가옥에서 보는 것처럼 전면에서 보았을 때는 -자형의 집으로 보이지만 후면으로 돌출부를 가져 전체적으로는 요(凹)자형의 평

면을 가지게 되는 경우는 그 변화의 동기가 결과로 볼 때 매우 이색적인 사례로 평가할 만하다.

집이란 대체로 자기과시적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값비싼 재화로 대대로 물려 사육하는 것이니 만큼, 보통의 경우 실제보다 과장하는 것이 상례이다. 이 경우는 오히려 외부에서 볼 때 실제보다도 작아 보이게 하는 것이 특이하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안채의 후면부, 혹은 상부의 다락 등을 이용하여 밖에서는 알 수 없는 비밀의 수장공간을 만드는 것도 근대기 전남지역의 집들에서 자주 발견된다. 이는 모두 흥부해진 경계력을 바탕으로 곡식이나 재화의 비밀 수납 공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생긴 일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학운동 이후의 내외적으로 불안한 사회정세를 반영한 결과로 생각된다.

여러 채의 건물이 분산형으로 배치된 모습은 얼핏 원칙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보다 친자연적인 배치법으로 앞으로 많은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자연의 지세를 최대한 살리고 그 미세한 지세의 차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대체적인 원칙은 전면에 사랑채를 두고 그와 나란하게 후면에 안채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향을 차지하기 위하여 혹은 지세의 경사를 이용하기 위하여 방향을 바꾸어 직각으로 배치하는 사례가 있으며, 또 사랑채와 안채를 옆으로 나란히 늘어놓는 배치형식도 발견된다. 이들 모두는 도면상의 도식적인 배치원칙을 따르기 보다는 진입에서 방으로 이르는 사람의 실제 움직임 상의 선후관계를 고려한 배치원칙을 따르는 기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매우 미세하게 조정된 특색있는 외부공간을 만들어내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정형적인 배치에서는 찾기 힘든 것이다.



보성 이금재 가옥



보성 이용우 가옥



보성 강골마을 (이용욱 가옥)



나주 홍실마을(홍기현 가옥)



장흥 위계환 가옥



장흥 위성룡 가옥



장흥 위성탁 가옥

IV. 터키의 건축문화 탐방을 다녀와서

네번째 이야기 - 디디마, 이스탄불 1

이순미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미가는 대표

1. 첫번째 이야기 - 에피다브로스, 미케네, 올림피아 (2010년 6월호에 기재)
2. 두번째 이야기 - 델포이, 아테네 (2010년 7월호에 기재)
3. 세번째 이야기 - 히에라폴리스, 파루칼레, 에페소 (2010년 8월호에 기재)

건축사 유럽여행 모임인 오군회에서는 지난 4월 9일부터 19일까지 10박 11일로 지중해 연안의 그리스와 터키의 건축 문화 탐방을 다녀왔다. 먼저 그리스의 건축문화를 2회에 걸쳐 소개하고 이어서 터키의 건축문화를 3회에 걸쳐 소개할 예정이다.

세계 최대 디디마 아폴로 신전 - 고대 신たく의 장소

세계 최대의 아폴로 신전을 보기 위해 우리는 터키 밀레토스 남쪽에 위치한 디디마를 향해 이동하였다. 현지어로는 디디마라고 불리우는 고대 성소(聖所)이자, 아폴론 신의 신たく 장소로, 그리스 신たく의 도시인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과 같은 이름의 신전으로 서로 비교할 수 있었다. 입장권을 구입하여 들어서니 먼저 우리를 맞이하는 것은 신전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2개의 메두사 조각상이었다.



메두사 조각상

아폴론신전에 오르면 그 규모와 스케일은 입이 벌여 질 정도로 컸다. 기둥의 높이는 8층 규모에 해당하는 25m로 과히 세계 최대 규모라는 명성다웠다.

BC300년경부터 짓기 시작했다는 아폴론신전의 기둥 기반부는 정교한 조각으로 되어 있었다. 신전의 안쪽에 들어서니 당시의 거대한 스케일감을 비로소 실감 할 수 있었으며, 고대의 사람들이 느꼈을 공간감을 나도 느끼고 싶어 아폴론신전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디디마 아폴론신전

전에 몰랐던 건축물을 새로이 알게 됨에 가슴 또한 벅차웠다.

아폴론신전 바로 앞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게 되었다. 터키의 음식은 우리의 음식과 유사하여 맛있게 먹을 수 있었으며, 짜지 않아서 좋았다. 특히 가지나물과 닭고기 요리는 우리의 조리법과 비슷하였다. 여행을 하면서 현지음식을 먹는 것도 그 나라의 문화를 느낄

수 있으므로 주로 현지음식을 고집하면서 먹어 보려고 시도한다. 여행을 하게 되면 평소보다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데, 이것은 아마 서바이벌 정신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리고 잘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

보스포러스 해협을 가운데에 두고 아시아와 유럽의 두 대륙에 걸쳐있는 이스탄불(Istanbul)은 터키 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터키에서 가장 큰 도시이다. 도시전체가 문화재이며 인류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아폴론신전 안뜰의 모습



아폴론신전 기반부

동로마 제국 시대에는 콘스탄티노폴리스(콘스탄티노플)라고 불렸으며 오스만 제국 때까지 수도로 존속하다가 현재의 이름으로 개칭되었다. 1985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도시를 들어서니 터키의 국화(國花)인 튜lip이 도시 가로변에 다양한 색깔로 아름답게 치장되어 있었다. 호텔에 이동하는 버스에서 이스탄불을 바라보면서 세계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인 성 소피아성당을 볼 수 있다는 것에 가슴이 설레었다.

세계7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인 성 소피아성당

호텔 도착 후 내일 보게 될 하기가 소피아성당 야경을 보기 위해 나왔다. 호텔 후르토에 문의하니 호텔에서 전자 정거장으로 4개소만 가면 소피아성당이 있다는 안내에 우린 산책 삼아 이스탄불의 밤을 느끼면서 걷기로 하였다. 도로변에 유물인 기둥들이 나뭇그늘이 있었으며, 이러한 모습은 이스탄불 어디를 가더라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어느 정도 다 왔겠다 싶었지만 소피아성당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다시 터키 사람에게 물어서 소피아성당을 찾았다. 드디어 야경 시설이 잘 되어져 있는 사원이 눈에 들어왔다. 우리는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사원에 들어갔다. 그러나 곧 문 닫을 시간이라서 우린 잔걸음으로 사원을 둘러보았다. 그 앞의 광장에서 단체 사진도 찍고 소피아 성당 야경을 보았다는 벅찬 가슴을 안고 돌아오는 길에는 터키의 전차를 타보는 경험도 하였다.

드디어 터키의 이스탄불을 본격적으로 탐미 할 수 있는 아침이 되었다. 소피아성당과 블루모스크는 서로 마주보면서 위치하고 있었다. 그래서야 우린 어젯밤에 간 곳이 소피아성당이 아닌 블루모스크라는 사실을 알고는 허탈해 하면서 서로를 보면서 웃었다.

우리 건축인에게는 블루모스크 사원보다는 소피아 성당이 중요하므로 야간경관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잘 되어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터키인은 지



소피아성당 앞에서(오군회)

금은 박물관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소피아 성당보다는 그들이 매일 기도 올리는 블루모스크 사원이 중요했던 것 이었다. 밤의 야경으로 블루모스크의 벽이 붉게 보이고 침탑의 숫자도 같아서 우리 모두는 소피아성당으로 착각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꺼리도 후에는 우리의 추억이 될 것임으로 유쾌하였다.

소피아성당이 처음 완성된 것은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326년)때였다. 그러나 화재로 인해 소실된 이후에도 중건과 화재로 인한 소실이 몇 번 반복되었다. 지금 현존하는 성당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건립된 것이다.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 때문에 이스탄불 주위에 있는 신전의 기둥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테네, 로마의 신전에 있는 주요 대리석이나 철문을 모두 가져 왔다. 그래서 소피아성당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기둥들을 한 공간에서 볼 수 있으며, 이렇게 하여 거대하고 웅장한 성당은 착공한지 6년 만에 완성 할 수 있었다.

물론 이 공사 때는 인부 노임이 다른 공사보다 많이 지급되었고, 연인원 2천만 명이 동원되기도 하였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신앙심과 사명감이 그들로 하여금 훌륭한 성당을 신속하게 완성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대지면적 약 3,124평 위에 희랍십자형 평면을 기본으로 한다. 내부길이는 92m, 폭 38m, 중앙에는 지상 55.6m 위에 직경 31.36m의 큰 돔을 올려놓고 큰 돔을 중심으로 그 네 모퉁이에는 각각 작은 돔을 두어 무거운 중력을 가볍게 받드는 듯한 돔 밀로 넓은 공간을 형성하여 신비한 분위기를 감동하게 만들었다.



소피아 성당 돔 내부 모습

그러나 이 성당도 역사의 변천 속에서 슬한 수난을 피할 수는 없었다. 1453년 동로마제국이 멸망하고 오스만 터키가 들어서자 이슬람 모스크로 활용되면서, 내부는 모슬렘의 분위기를 강조하기 위해 기독교적 분위기를 석회로 덮었으며, 외부도 네 개의 침탑을 세워 가능한 모슬렘적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다시 터키 건국의 아버지인 케말 파사가 등장하면서 이 건물은 종교적 분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박물관으로 만들었다. 기독교의 성상을 덮어버리고 모스크회화를 그렸던 곳을 재발굴하여 현재는 기독교의 성상 모자이크와 모슬렘 회화가 한 건물 안에 공존하도록 하여 박물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이다. 다행인 것은 오스만 터키때 기독교 성상을 아예 없애지 않고 단순히 석회로 덮어 그 위에 다시 회화를 그렸다는 것이다.



소피아 성당의 예수님 성상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작품의 변색을 막고 보호하는 효과까지 있었다. 그래서 지금에 우리는 아름다운 성상의 모자이크를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잘 생기고 인자한 모습의 예수님 성상은 나를 가슴 뛰게 하였다. 이러한 성상 복원은 현재에도 진행 중이지만 터키정부는 결코 서두르지 않는 것 같다. 후에 소피아 성당을 찾을 때는 더 많은 성상 모자이크를 볼 수 있으리라 기대 해 본다.

(다음호에 터키여행기 마지막 회가 게재됩니다.)

'노벨평화상 기념관 건축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제안공모결과 (주)금성 종합건축사사무소의 안이 당선작으로 (주)광주공간 건축사사무소의 안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총 72억여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으로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삼학도 복원화 사업지구내)에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된다. 당선안은 5대양 6대주로 하나의 공동체인 지구와 화해, 소통 그리고 자유와 화합을 담은 평화라는 기본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자유로움(공존)과 평화(화합)을 상징하도록 크기가 다른 각각의 6개의 매스와 이것들을 하나로 묶는 수평의 지붕으로 형태를 계획하였다. 또한 목포만부터 중삼학도까지 열리는 화합의 광장을 계획해 화해와 소통을 위한 상징공간을 부여했다.

노벨평화상 기념관 건축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제안 공모



▲ 메인 투시도



▲ 전면 조감도



▲ 부분 투시도

당선작

(주)금성 종합건축사사무소
김용미 건축사

대지위치 :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1481번지 외 8필지
 대지면적 : 18,400.00㎡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도로현황 : 남측 8M도로, 북측 2M차전거도로, 동서측 4M보행자 도로
 연 면 적 : 6,433.02㎡
 건축면적 : 5,400.51㎡
 건 폐 율 : 0.94% (삼학도 전체부지 적용)
 용 적 율 : 34.96%
 층 수 : 지상 2층
 주요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주요 마감 : U-GLASS, 석재건식붙이기, 로이복층유리, 금속지붕
 주차개요 : 8대(장애인 4대, 직원 4대) - 지침 : 광장주차장을 이용한 보행접근



▲ 배치도



▲ 투시도

우수작

(주)광주공간 건축사사무소
조성호 건축사

대지위치 :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동 1481번지 외8필지
 대지면적 : 18,400.00㎡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도로현황 : 남측 8M도로
 연 면 적 : 6,395.31㎡
 건축면적 : 4,105.95㎡
 건 폐 율 : 22.31%
 용 적 율 : 34.76%
 층 수 : 지상 2층
 주요구조 : 철골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요 마감 : 알루미늄쉬트, 투명복층유리



▲ 투시도

(주)포유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72-8번지 호산헌 T/062.226.4800

Π ⊥ Ο Π
 Γ ⊥ Δ ⊥ Γ 사

네일의 건축문화유산,
 오늘의 건축사 맥입니다.

건축사 박흥근



광주건축사회 '제1기 건축사 Academy' 초대 원장 류연창 건축사 '교류·소통의 장'으로 자리를 잡도록 할 터

광주건축사회에서는 회원들의 폭넓은 소양과 지적수준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건축사 Academy'를 기획하였으며, 2011년 1월까지 총 30시간의 프로그램을 확정하여 지난 9월 3일에 제1기 과정이 개강하였다. 이에 광주건축사회 '제1기 건축사 Academy' 초대 원장으로 추대된 류연창 건축사를 찾아 추구하고는 목표와 발전방향에 대해 들어 보았다.

서구 월산동에 위치한 류기림건축 사옥을 찾은 취재진을 류연창 건축사는 반갑게 맞아 주셨다. 본론에 앞서 그동안의 근황과 건강을 주제로 잠시 인사말을 나누었는데, 말미에 류연창 건축사는 "이 사람들이야, 이럴 때만 찾지 말고 막걸리 마실 때도 불러줘! 늙었다고 소외시키지 말고... 허허허"라시며, 너털웃음과 함께 섬섬한 속내를 은근히 내비치셨다. 인터뷰는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는데, 주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초대 원장이 되신 소감은?

능력면에서 적임자라기보다는 오랫동안 활동했던 원로건축사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선임된 것 같다. 광주건축사회 신정철 회장이 '건축사 Academy' 개설 취지를 설명하기에 무심코 동조한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줄은 몰랐다. 그렇지만 이 일을 맡음으로써 건축계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기꺼이 헌신하고자 한다. 특히 초대 원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개인적으로는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 시점에서 '건축사 Academy'가 필요한 이유와 개설의 의미는?

지급처럼 모든 것이 급변하는 시대에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곧 뒤처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 건축계도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발전을 추구해야 하며, '건축사 Academy'는 그러한 건축인들의 욕구를 다소나마 충족시켜 주리라 믿는다.

사실, 이 지역 건축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래서 건축 3단체(건축가협회·건축사협회·건축학회) 연합회가 출범한 이후로는 좀 더 구체적인 논의도 있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그렇기에 이번 '건축사 Academy'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 일을 추진한 광주건축사회에 고마움을 전하고 싶을 정도다.

'건축사 Academy'가 추구하는 목표와 운영방향은?

목표도 될 수 있고, 운영방침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 교육이나 강의라기보다는 심포지엄 형식을 취함으로써 건축인들끼리 서로의 발전을 위하여 대화하며 의견을 나누는 '교류의 장·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 되도록 하겠다.

둘째, 건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주 만나서 정보를 교환하고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건축과 동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더욱 더 키워갈 수 있는 '만남의 장·화합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

셋째, 이론도 중요하지만 가급적이면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식을 주고받음으로써 바로 실현가능할 정도로 참가자들에게 직접 와 닿을 수 있는 '산지식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

그 밖에도 많은 생각과 포부가 있지만, 시작단계이니 만큼 분위기 조성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되어 다소 추상적인 목표를 설정해 보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초대 원장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건축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 건축인들의 권리와 역할은 특정인들만의 노력으로 지켜지거나 향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향상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지만 모든 건축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고 싶다. 우리는 '건축'이라는 한배를 탄 '공동운명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자는 이야기다.

공식적인 인터뷰를 마친 후 류연창 건축사는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열변을 토로하였으며, 그 부분은 다음 기회에 다시 찾아뵙고 취재하기로 했다.

▶ 제1기 건축사 Academy 경과 보고

- 2009. 4. 7: 2010 협회 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 2009. 5. 15: 회원 워크샵(설문조사 결과 분석)
건축사 Academy 단위사업 선정
- 2009. 6. 26: 제4회 이사회의 / 교육홍보위원회 업무 분장
- 2009. 7. 6 ~ 12. 10: 교육홍보위원회 (5회)
Academy 추진방향 토론
- 2010. 3. 17 ~ 7. 30: 교육홍보위원회 (4회)
Academy 추진계획 협의 및 확정
- 2010. 6. 15: 제6회 이사회의 / Academy 모집 공고(안) 확정
- 2010. 7. 12: 수강신청서 접수(접수인원 50인)
- 2010. 8. 19: 제5회 교육홍보위원회
/ 강의일정 통지 및 개강식 준비계획 수립
- 2010. 9. 3: 제1기 Academy 개강

▶ 교육홍보위원: 장정수(위원장), 정운태, 김종철, 김중필, 박신준, 이순미, 한영석

대담: 박홍근 편집인 foryoua@hanafos.com
정리: 서재형 건축사 기자 archiseo@tycos.co.kr

건축사 Academy 지상강좌

'땅과 건축' _지문/地文/Landscape

지난 9월 3일, 광주건축사회 '건축사 Academy' 개강식과 함께 '2011광주디자인비엔날레' 공동 디자인총감독으로 선임된 송효상 건축사의 강연회가 '땅과 건축'이라는 주제로 광주건축사회관에서 열렸다. 강연회의 내용과 분위기를 그대로 지면으로 옮길 수는 없지만,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요 골자를 요약하여 본다.

강연에 나선 송효상 건축사는 "여러 예술분야 중에서 장소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반영되는 분야는 건축이 거의 유일하다."는 말을 시작으로 건축행위에 있어서 장소성, 즉 땅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그가 말하는 땅의 의미는 지형·지질 등 물리적인 성격은 물론이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땅에 남겨진 삶의 흔적과 문화 등 역사적·정신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자연의 섭리까지도 포괄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땅에는 때로는 자연의 세월이, 때로는 우리의 삶이 새겨놓은 과거의 기억이 손글과 지문처럼 남아 있으며, 인간의 지문처럼 모든 땅도 고유한 무늬를 가지고 있고, 이를 지문(地文/Landscape)이라 정의하고 싶다."고 역설했다.

"인간은 높이 오를에 대한 열망이 본능처럼 존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엄청난 대가를 치르며 문명도 발달하였다. 고대시대는 이러한 높이에 대한 인간의 열망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획기적으로 발전한 시기이며, 높고 거대한 신전건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르네상스시대에는 모든 인간을 위한다기 보다는 소수 권력자만을 위한 건축과 도시계획이 성행하다보니 중심성에 도취되었다. 그 구조는 중심에는 가장 신분이 높은 이가 거주하며 그 세계를 관장하고,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계급도 낮아지고 신분도 미천해지는 지극히 위계적이며 분파적이다. 즉, 하나의 다이어그램을 현실화한 것이다."

"완벽한 다이어그램의 도시에 적합한 곳은 평지였으며, 지형과 물길 등 자연은 정복의 대상일 뿐이었다. 그래서 기존 땅의 야생적 모습은 사라져야 했고, 변질된 땅 위에는 오로지 중심과 위계가 축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근대적 도시에서도 위계적·중심적 도시구조는 여전히 중요한 개념으로 유지되었다. 도시를 도심·부도심·변두리로 나누는 것도 그렇고, 북고

푸른 칠을 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 구분하는 것도 그러했다. 흔히 마스터플랜이라는 이름을 갖는 이 도시의 그림도 르네상스시대처럼 다이어그램이었고, 그 그림에 동원된 주된 단어는 효율성과 합리성 그리고 기능과 속도였다. 여전히 '땅의 윤리'란 단어는 생소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서구에서 이미 폐기된 듯한 이런 마스터플랜이 우리 고유의 땅을 유린하기 시작한 것이다. 서구의 마스터플랜은 그래도 도시에 대한 목표가 있었고, 오랫동안 도시공동체를 건설해 온 전통과 사회구성체에 대한 치열한 담론을 통해 잉태된 것이다. 그러나 철저히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이 야합해서 만든 우리의 신도시들이 이 땅을 개조했다."

오랜 삶의 터전은 그 속에 구축된 건축과 함께 순식간에 사라져야 했으며, 공동체에 대한 어떤 함의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은 애초에 도시가 될 수 없었다. 그냥 부동산 집적 체질뿐인 불구의 도시였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신도시들을 만드는 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옛 도시들을 재개발, 도시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죄다 그렇게 터무니없이 뜯어 고친다는 데 있다. 우리의 옛 도시들이 가진 땅의 논리가 서양인이 만든 다이어그램적 마스터플랜과는 사뭇 다른데도, 건축은 한갓 사고파는 부동산으로 굳게 밀려진 현대의 한국인에게, 우리의 옛 도시와 건축은 버려야 하는 구악일 뿐인 것이다."

"우리 선조들은 건축을 할 때 먼저 땅과 건축 사이의 윤리를 따졌고, 건축과 건축의 윤리를 따졌으며, 건축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따졌다. 노동을 뜻하는 건축(建築)이 아니라 가꾸어서 만드는 영조(營造)라고 했으며, 집은 그냥 물리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사유의 과정을 통과해서 짓는다고 했다. 그게 모든 건축술의 첫째 요강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건축은 자연과

조화하고, 주변과 조화하며, 인간과 조화하고, 전체가 조화한 풍경을 그렸다."

"우리 말 '터무니'라는 단어는 직역하면 '터에 새겨진 무늬'라는 뜻이다. '터무니없다'는 말은 근거 없고 이유가 없음을 뜻한다. 놀라운 의미이다. 적어도 우리 선조가 가진 삶에 대한 생각은 근본적으로 땅에 새겨진 역사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말이다.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1976)는 인간은 정주함으로써 존재하며 시적(詩的)인 자만이 정주할 수 있다고 했다. 정주한다는 것은 땅에 삶의 흔적을 남기는 일이며 기억을 적층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에게 '땅에 남겨진 기억'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 사라져야 하는 폐쇄적이고 구악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 상실을 강요받았으며, 따라서 우리 모두 터무니없는 삶을 산다."

"지문(地文/Landscape)은 끊임없이 변하는 생명체이며 스스로 무엇을 덧대어달라고 요구하는 기온체이다. 혼도 있고 정수도 있으며 심지어 말하기도 한다. 따라서 수잔 랑거(Susanne K. Langer, 1895~1985)의 말처럼 '정소의 특성을 시각화하는 우리의 건축행위는 그 장구한 역사를 체험해 온 땅이 새롭게 요구하는 말을 경청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온갖 예의를 갖추어 그 경이로운 언어를 들추어내고, 깊이 사유하여, 새로운 사어를 그 위에 겸손히 지어 덧대는 일이 건축이다."

"건축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세운 자의 영광을 만세에 기리기 위해 기념비적 건축이 세워졌어도, 혹은 가진 자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온갖 기술적 성취를 이루며 하늘 높이 솟았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 건축도 결국은 중력의 법칙을 이겨낼 수 없다. 남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거기에 있었다는 기억뿐이다. 그것만이 구체적 진실이 된다."

정리: 서재형 건축사 기자 archiseo@tycos.co.kr





광주 비엔날레 66일간의 장정에 돌입하다!!

- 제 8회, "만인보 MANINBO / 10000LIVES" 9월 3일~ 11월 7일

이번 전시의 주제어 '만인보'는 고은 시인의 동명의 연작시에서 차용하였다. 만인보는 고은 시인이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혐의로 투옥생활을 하면서 구상한 작품으로 지난 4월 마지막 30권을 발표하면서 완간된 인류애에 대한 거대한 백과사전이다. 시만인보는 그가 평생 동안 살면서 직접 만났거나 역사와 문학을 통해 만난 인물 3천800여 명의 삶을 요약 소개한 초상화집이기도 하다.

전시 만인보는 이미지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 자신 및 사랑하는 이들을 대신하는 우상과 대응품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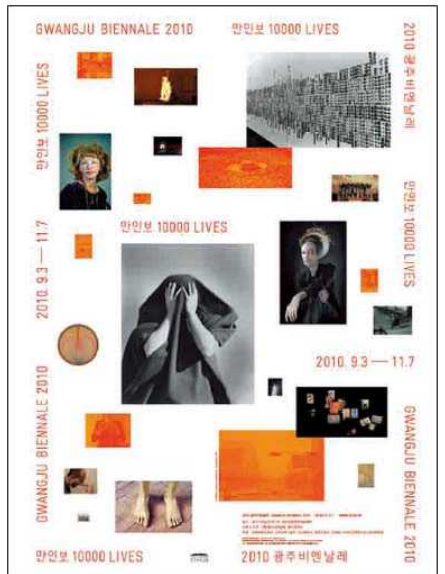
지오니 감독은 "고대 신화에 따르면 이미지는 연인의 그림자를 표현하거나, 우리가 떠나 보낸 이들의 삶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소개하고 "이번 전시는 초상화 갤러리 혹은 가족 앨범으로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들 "우리는 사람들이 만든 이미지와 남기고 간 이미지들을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며, 장례식 조형물에서 상업적 광고 이미지로, 종교적 아이콘에서 과학적 도구로,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의 이미지에서 우리의 욕구를 투영시킨 이미지로 등등 끊임없이 변형되는 이미지들의 족적을 추적함으로써 이미지 자체의 생명(살)을 따라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대 작가의 작품과 함께 이번 전시는 이미지들을 보다 넓은 문화적 맥락 속에 위치시킴으로써 이미지의 다양한 존재를 실증하는 다양한 문화 창작품들과 발굴 사진들이 소개된다. 국제 전시인 만큼, 문서, 역사유적, 예술 작품, 그리고 이미지 사이의 경계가 종종 허물어지게 될 것이다.



특별프로젝트 시장 속의 광주비엔날레 '장삼'이 전시 열리는 광주 양동시장



제8회 광주비엔날레 포스터



제8회 광주비엔날레 전시작품 일부

2010 제8회 광주비엔날레가 9월 2일 저녁 광주시 북구 용봉동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앞 광장에서 개막식을 갖고 3일부터 오는 11월 7일까지 66일간의 장정을 시작했다.

2010광주비엔날레는 '만인보(10,000LIVES)'라는 주제로 사람과 이미지, 또는 이미지와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 폭넓은 탐구작업으로 이뤄진다.

참여작품은 20세기 초반부터 올해까지 작품활동을 한 31개국 134명의 작가들의 작품들로 구성되며, 특별히 이번 광주비엔날레를 위해 제작된 신작들도 포함돼 있다. 전시는 이미지에 대한 집착을 표현해낸 예술 작품과 문화 창작품들로 구성되어 전시 자체가 이미지에 대한 하나의 거대한 임시박물관으로 운영된다.

광주비엔날레 마시밀리아노 지오니 예술총감독(이탈리아)은 2일 오후 2시 광주비엔날레 회관실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 및 전문가 초청설명회'에서 "우리는 매일 수 백만 개의 이미지들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이미지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2010광주비엔날레는 다양한 시각예술 작품들을 통해 이미지와 사람들의 관계를 고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나의 웹 사이트에서만 초당 50만개 이상의 이미지들이 업로드 되고, 미국인들의 경우 초당 평균 550개의 스냅 샷을 찍고, 하나의 이미지를 재생산하기 위한 비용으로 1천4백만 달러를 사용한다. 우리는 이미지에서 위안을 찾으며, 이미지의 이름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이미지를 중심으로 모이고, 이미지를 숭배하고 갈망하며, 이미지를 소비하고 또 파괴한다"고 설명했다.

비엔날레 전시 장소

이번 전시회 역시 비엔날레 전시관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곳에서 전시가 이루어지는데 각 장소와 주요구성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장소	전시 공간	주요 구성
비엔날레 전시관	1전시실	이미지의 창조, 이미지의 제시
	2전시실	이미지의 구성, 입투현
	3전시실	기억의 공간, 기념, 생존으로서의 이미지
	4전시실	유연대상의 이미지
	5전시실	기억의 이미지
광주시립미술관	1, 2전시실	자화상과 자기재현
광주시립민속박물관	기록전시실, 민속해람관	역사와 기억
양동시장 (특별 프로젝트)	여진관, 시장공간	이미지의 벽, 이모티콘 맵, 양동시장 아카이브 등

신영은 건축사 기자 archwye@naver.com



국내외 거물급 갤러리들이 참여하는 국제 미술장터인 '2010 아트광주'가 9월 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식을 갖고 5일간 진행되었다.

광주에서 개최되는 첫 국제 미술장터인 '2010 아트광주'는 중앙시장에 비해 그 인기가 열악한 지역에서 열림에도 불구하고 개막 첫날 2,000여 명의 관람객이 찾는 등 성황을 이뤘다.



광주 아트페어 전시작품

이번 '2010 아트광주'는 영국의 리슨 갤러리와 이탈리아 컨티누아

광주 첫 아트페어 '2010 아트광주' 열려

- 800여 명의 작가, 2천 100여 점 작품 출품 돼

갤러리, 일본의 토미오 코야마 갤러리, 서울 가나아트, 광주 나인갤러리 등 국내외 53개 화랑과 루벨 패밀리 컬렉션으로 알려진 돈과 메라, 스위스 컬렉터 올리 직,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감독으로 내정된 아이 웨이웨이, 미국의 신디 셔먼 등 800여 명의 작가가 2,100여 점의 작품을 출품했다.

기존 상업적 성격의 아트페어에 공공성을 가미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으며 판매실적도 당초 목표액인 40억 원을 넘어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나타냈다. 이 중 총 150점이 판매됐으며 판매액은 총 42억 원으로 집계됐다.

또 이번 아트페어는 국내 미술시장이 작품을 전시장



광주 아트페어 전시작품

에 걸고 판매하는 백화점·슈퍼마켓 전시를 선보여 온 것에서 벗어나 특별전시회와 대담 프로그램을 접목해 공공성을 높였다는 점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정광선 건축사 기자 0117696430@hanafos.com

학교소개는 우수건축인 양성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획하였으며, 먼저 4년제 또는 5년제 대학교의 건축전공을 광주·전남·전북 등 소재지별로 구분한 후 학교명의 한글 순서로 게재한다. 기사내용은 해당 학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학교로 문의하기 바란다. <편집자 주>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하는 건축인 양성기관

우석대학교 건축·인테리어디자인학과

우석대학교 건축·인테리어디자인학과는 역사적 문화적 전통을 기반으로 미래공간환경을 창조하여 인류의 건축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인의 양성을 기본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전통을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구비하여 전통과 조화되는 건축인의 양성, 실용적 사회를 창조하는 실용지식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인의 양성,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건축인의 양성을 교육의 세부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학과는 건축디자인, 인테리어디자인 및 건축공학에 대한 전문교육은 물론 역사적 책임감과 인성교육을 포함한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학과는 1997년 개설된 이래 학과목표의 달성에 필요한 H/W 및 S/W의 구축에 지속적 투자와 노력을 경주해왔고, 그 결과 설계실, CAD실, 작품제작실 등의 건축설계 및 인테리어디자인 실습지원 시설과 건축공학 관련된 구조, 재료, 시공 등의 각종 실험실습실을 충분히 갖추게 되었으며 다양한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실용학문으로서의 건축교육 지향

본 학과 교육프로그램 운용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들의 다양한 적성을 계발하고 수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실용학문으로서의 건축교육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에 관련된 기본공통과정을 이수한 후에는 건축설계, 인테리어 디자인, 리노베이션 디자인 등의 디자인 분야와 구조, 재료, 시공, 환경설비 등의 공학기술분야 중 적성과 장래성을 고려한 희망에 따라 선택적으로 전문분야를 선택, 집중적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렇게 신입생들의 전공탐색의 시간 및 노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장래를 설계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건축 전반의 폭넓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의 교수진은 건축디자인, 인테리어디자인, 구조공학, 시공 등의 실무에서 다양한 경험과 업적을 보유한 교수들로 구성되어 다양한 실무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산업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건축설계, 시공분야 등 풍부한 실무경험을 보유한 외부 전문가들과 협동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여러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국제화시대에 걸 맞는 건축인의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 선진건축 견학프로그램을 1년에 최소 1회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 중국, 뉴질랜드 등 해외 우수대학들과 교류협력협정을 체결하여 교류방문 및 파견유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해외건설현장에서의 인턴십과정이 있으며, 작년에는 아랍에미리트로 인턴과정을 시행하고 취업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폭넓은 선택을 위해 4년제 교육과정 채택

경험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신입생들은 건축학의 다양한 전문분야 중에서 본인의 적성에 정확히 맞는 분야를 선택하기 어려우며 일정한 기간의 탐색기회를 부

독창적인 창의력과 전문성으로 새로운 문화를 선도합니다.

여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선진국 대학들도 이런 사실에 근거하여 탐색기간을 운용하는 추세이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5년제 건축설계전공교육의 확산은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학과는 현재 5년제 건축학 과정과 4년 공학인증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일본의 대학들과 같이 4년제 교육과정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건축디자인, 구조, 시공, 인테리어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에 진출할 때 건설회사, 건축설계사무소, 가구 및 인테리어 디자인회사 등 다양한 진로로 진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졸업생 전원이 3년 연속 공모전에 당선

이러한 노력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전북건축대전에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8회 연속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2008년과 2009년에는 전북 최다 수상의 실적을 거두게 되었다. 또한 건축대전, 주택공사 공모전, 강구조설계공모전, 에너지학회 공모전 등 전국규모 건축설계공모전에서도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 있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공부한 학생들은 건축설계공모전 이외에도 공공디자인, 가구 공모전 등의 디자인 공모전과 콘크리트 기술경연대회 등에 출전하여 입상하는 등 건축 전 분야에 걸쳐 자랑할 만한 실적을 거두고 있고, 교육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통해 졸업생 전원이 3년 연속 공모전에 당선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런 과정을 거쳐 졸업생들은 설계사무실, 시공회사, 인테리어사무실, 공무원, 전문대학원 진학, 유학, 가구회사 등 다양한 분야로 취업하고 있다. 특히 재학 중 각종 공모전에 당선된 실적이 있기에 해외유학 및 대기업 취업에도 유리하게 작용되고 있다. 교육부가 공시한 전체 취업률은 2007년도 92%, 2008년도 77%, 2009년도 91%이며, 정규직 취업률도 67%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본 학과의 교육과정이 실무중심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프로젝트 위주로 수업을 진행한 결과이며, 각종 공모전에 의무적으로 출품하여 수상하게 하는 등 심도 있는 교육의 결과로 판단된다.

이와 아울러 학생활동도 활성화되어 운영되고 있다. 우선 설계공모전 동아리, 스케치 동아리, 공무원 준비반, 도시건축연구실, 도시경관연구실, 건축구조연구실, 건축시공연구실 등의 학술 동아리와 축구부 등의 운동 동아리가 있어 전공과 관련된 지식의 습득 및 학생상호간 다양한 교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ASEM 국제대학 인가

최근 우리학교는 ASEM의 교육기구인 ASEF와 협약하여 ASEM 국제대학을 교육부로부터 인가 받았고 건축을 준비 중에 있다. ASEM 국제대학에서는 120개 회원국의 관료 및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데 우리 학과는 국제대학에 소속이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등 개발도상국가의 관료와 학생들에게 한국의 개발경험을 교육하고, 또한 우리학과 졸업생들이 해외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해외취업을 위한 특

성화 과정도 준비하고 있다.

우리 우석대학교 건축·인테리어디자인학과는 학생들의 실력향상 및 인성교육, 각종 공모전 수상, 취업의 경쟁력 강화, 해외취업확대 등 학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한국의 건축문화에 일조하며, 더 나아가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건축인을 배출함에 있어 선봉에 설 것을 다짐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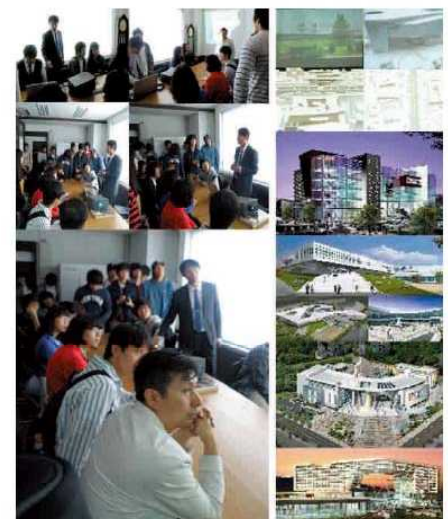
우석대학교 과학기술대학 건축·인테리어디자인학과
학과장 : 은민규 교수 20079022@hanmail.net
학부사무실 : 063) 290-1460
홈페이지 : http://archi.woosuk.ac.kr



설계수업



파주 헤이리 견학(2010년)



건축설계사무소 견학(2010년)



인천공도국제도시 견학(2010년)



체육대회(2010년)

전북대학교 '2010 졸업전시회'

전북대학교는 올해로 5회를 맞는 건축학과 졸업전시회를 9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 동안 교내 삼성문화회관에서 개최하였다. 그리고 건축학과가 건축공학으로 통합되면서 건축공학과 졸업은 문전시도 함께 치러졌다.



한편 이 기간 중에 조병수 건축가(조병수건축연구소) 및 이신재 동서건설 대표이사와 함께 하는 포럼도 개최되었다.

전북대학교 건축학부 김소희 학생기자 ell8734@naver.com

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전북대학교 리노베이션으로 개교 60주년을 넘긴 시점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해주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의 입장에서 제안하는 캠퍼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IFoU 여름학교를 다녀와서-

지난여름에 베이징에서 열리는 IFoU(International Forum of Urbanism)의 여름학교에 참여하였다. IFoU란 도시설계에 대한 의논을 위해 대학과 산업체, 그리고 관련정부가 힘을 모아 결성한 국제단체이다. IFoU의 여름학교는 매 시즌마다 열리며 세계 각 도시의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진행된다.

도시들이 가진 문제와도 동일선상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시의 주된 요소는 건축물이다. 아직 까지의 나는 건축물과 그 주변에 국한된 도시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여름학교로 인해 도시에 대한 시야를 넓힘과 동시에 도시에 대해 보다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고민해 볼 수 있었다. 특히,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여러 나라의 참가자들과 함께 도시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디자인 접근방법을 논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참고로 IFoU 홈페이지는 'http://ifou.org'이다.

이번 IFoU 여름학교의 주제였던 베이징이 겪고 있는 문제는 상업지역의 고밀도화와 혼잡, 도시의 팽창 과정에서 생겨난 애매한 성격의 공간, 도시의 과거와 현재가 불협화음 공존하는 공간, 많은 자동차로 인해 지역을 양분하는 거대한 도로와 주차문제 등이다. 이런 것들은 급격한 발전을 이룬 우리나라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이수정 학생기자 rozen_j@naver.com

지난여름 오사카에서-

지난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일본 오사카를 다녀왔다. 2년 만에 다시 찾은 오사카는 크게 변한 것은 없는 듯 했지만, 그동안 나의 눈높이가 달라져서 그런지 사뭇 다른 느낌과 감흥을 주었다. 그 중에서 문화적 이질감과 역사적 적개심 때문에 유난히 기억에 남는 것은 오사카성 천수각이다.



단순해 보였다. 8층 전망대에 올라서면 오사카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데, 잘 정돈된 일본의 시가지는 건축을 공부하는 나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이훈희 학생기자 hh3759@naver.com

오사카성 천수각은 1583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3년에 걸쳐 건립한 성으로 8층 규모이며, 화재로 인해 소실되었다가 1931년에 다시 재건하였다. 일본의 성은 넓게 펼쳐지 보다는 위로 쌓아 올라가는 형태이며, 내부 구조는 비교적



AR (주)에/이/알건축사사무소 062) 381-1337~8
대표/건축사 정 일 중 광주광역시 서구 미륵동 184-20



'Barrier-Free Design' 원광대 대상

보건복지부와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장애를 없는 생활환경 디자인 (Barrier-Free Design)', 공모전에서 원광대학교 권영근·고인호·김인영 팀의 'Harmony'가 건축물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의 확대보급 일환으로 올해 처음 개최되었으며, 대상을 차지한 'Harmony'는 유선형적 디자인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동일한 공간에서 장애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요소별 공간의 장애물 없는 (Barrier-Free) 환경디자인을 표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권영근·고인호·김인영 팀은 '가로디자인' 부문에도 출품해 입선을 차지하였으며, '건축물'

부문에서 광대경·이아린·이민재 팀 (Free Pass)은 장려상을, 문생이·최규중 학생 팀(FH Combination)과 김상훈·최의인·임창균 팀(사랑앓) 그리고 김재식(Gate) 등이 각각 입선을 차지하였다. 이밖에 전주대학교 건축학과 소현진 학생(Barrier Free Soft Space)도 '건축물' 부문에서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원광대학교 건축학과 서민식 학생기자 archcity@nate.com

친환경건축디자인공모전

한국태양에너지학회에서 주관한 '제3회 친환경건축디자인공모전'에서 지역 대학교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저탄소 설계기법과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주제로 한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에서 400여 팀이 참가하였으며, 동산대

학교 냉병 학생과 전북대학교 이동욱 학생의 작품이 가작에 뽑혔으며, 국립군산대학교 고병천, 전남대학교 임옥균, 조선대학교 김관우, 정장현, 정준영, 황성오 등이 입선하였다.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이슬기 학생기자 homin1004@nate.com

대학단신

- ▶ 전북대학교 건축학과 졸업전시회
일시: 9. 8(수) ~ 9. 11(토)
장소: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
-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건축전
일시: 9. 30(목) ~ 10. 2(토)
장소: 전남대학교 공대 2호관
- ▶ 전주대학교 건축공학과 홈커밍데이
일시: 10. 30(토) 10:00
- 장소: 추후 공지
-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건축전
일시: 10. 7(목) ~ 9(토)
장소: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
- ▶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건축전
일시: 10. 12(화) ~ 15(금)
장소: 광주대학교 중앙도서관 5층

제7회 광주건축·도시 문화제 UCC 공모전



- 공모주제**
- 광주건축 도시이야기 (도시의 역사관, 도시디자인과 공간, 일상의 도시)
- 응모자격**
- 자격제한 없음, 개인 혹은 팀(2인 이하)
- 응모규격**
- 해상도: 640X480 Pixel / 24fps 이상
- 길이: 3분 이내 분량
- 출력물의 파일 형식은 AVI, MPEG 형태로 제출하여야 함
- 동영상 마지막 컷에 제작자(본인) 명시
- 용량: 100MB 이내로 제작
- 작품집수**
- 제출기간: 2010. 9. 1(수) ~ 9. 30(목) PM6:00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 제출방법: 우편 및 방문접수
500-876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광주건축학회관 4층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 제출서류: 참가신청서와 CD
- 등 록 비: 없음
※ 참가신청서는 홈페이지 http://gjkira.kira.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시상내역**
- 시상일시: 추후공지
- 시 상: ▶ 대상(1명): 상장 및 상금 100만원 ▶ 금상(1명): 상장 및 상금 70만원
▶ 은상(2명): 상장 및 상금 50만원 ▶ 동상(3명): 상장 및 상금 30만원
- 심사 및 발표**
- 광주건축도시문화제 운영위원회에서 내·외부 전문가 심사위원 구성 및 평가
- 심사위원 및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음
- 발표: 2010. 10. 15 (금)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 진 시**
- 기 간: 2010. 11. 4 (목) ~ 11. 7 (일)
- 장 소: 김대중컨벤션센터(18층) 전시실
- 기타사항**
- 입상작품의 저작권은 주관기관에 귀속되며, 작품은 반환 불가
- 저작권 문제 등 출품작품 관련 모든 법적 책임은 출품자가 부담
- 다 공모전 입상작 및 표창작 발표할 경우 입상이 취소되고 상장 및 상금은 주최측에 반환
- 응모신청서 앞부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주최 및 주관**
- 주 최: 광주광역시
- 주 관: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500-876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광주건축학회관(4층)
Tel. 062)528-0025~6, Fax. 062)528-0026, E-Mail: gjkira@empal.com
홈페이지 http://gjkira.kira.or.kr



전북건축사회 창립 45주년 기념 "건축문화축제" 대성황 이뤘

— 국제교류 전시회 및 초청강연회, 기념식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
— 전북건축계 "이번 건축문화축제를 계기로 새로운 건축문화 창달될 것"

전라북도건축사회는 창립 제45주년을 맞이하여 국가발전과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해온 건축사의 업적을 기리고, 21세기 친환경 건축문화시대를 맞이하여 건축사의 역할과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건축문화축제를 9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일원과 전통문화센터 한벽극장에서 개최하였다.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린 국제교류 전시회



류준수 건축사 초청강연회

이해 제고 및 건축인들 상호간의 화합과 단합의 기회 제공코자 마련하였다.

이날 기념식은 대금연주와 시낭송 등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및 내빈소개, 국민의례 건축사회장 낭독, 연혁보고, 기념사, 축사, 축하공연,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이성엽 전북건축사회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아름다운 건축을 창조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고, 이번 기념식을 계기로 건축인의 결속과 전문인으로서 새로운 발전 전략과 비전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자고 밝혔다.

전북건축계에서는 4일간 펼쳐진 이번 전북 건축문화축제를 통해 창작예술의 한분야인 건축설계에 종사하고 있는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전북 고유의 지역성과 다양한 건축문화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건축사들의 열정으로 지속가능한 새로운 건축문화가 창달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기범 건축사 기자 vivo@kira.or.kr



'건축문화축제' 개막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식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국제교류 전시회



전북건축사회 창립 45주년 기념식



독일건축가협회 차벨랄프 주재원과 전북건축사회 이성엽 회장

축으로의 변화의 시기를 맞아, 전문가로서 예향 전북의 멋과 아름다움이 지역 건축문화에 고스란히 담길 수 있도록 전통과 현대가 조화되는 새로운 건축문화탐구에 지속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전시회는 국외 작품을 비롯하여 전북건축사들의 작품 또한 전시되어 대학생들을 비롯한 일반시민들에게 건축설계의 중요성과 전북건축사들의 작품 활동 역량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류준수 건축사의 '건축이야기'

건축설계작품 국제교류 전시회 개막행사에 이어 류준수 건축사의 초청강연회가 진행되었다. 류준수 건축사는 스포츠 경기장의 멤브레인 공법의 세계적인 권위자로서 서울 상암월드컵 경기장과 88 서울올림픽 체조경기장 등을 설계하였다. 이날 강연회는 지금까지 류준수 건축사가 설계해온 여러 작품을 슬라이드로 보여줌과 동시에 그에 얽힌 스토리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건축사를 비롯하여 공무원, 교수, 대학생 등 200여명이 넘는 인원이 몰려 강연장 좌석이 모자랄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독일·중국·전북 국제교류 전시회

개막일인 1일부터 4일까지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열린 건축설계작품 국제교류 전시회에서는 건축설계작품 총 56점(독일 20작품, 중국 강소성 14작품, 전북건축사 22작품)이 전시되었으며, 특히 개막일에 독일 건축가협회 한국주재원인 "차벨랄프"로부터 독일 작품에 대한 개요와 독일의 친환경 건축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전북건축사회 이정호 부회장의 중국 강소성 감찰설계협회작품에 대한 설명과 이태원 기획위원장의 전북건축사 회원 작품에 대한 개요 설명이 이어졌다.

한편 이성엽 전북건축사회 회장은 개막식 인사말을 통해 "과거 주거문제해결을 위한 양적팽창시대와는 달리 현재는 디자인 중심의 소형창작이 중시되는 건

전북건축사회 건축문화축제

9월 2일, 전주 전통문화센터 한벽극장에서 열린 전북건축사회 창립 45주년 기념식은 건축사를 비롯한 건축에 종사하는 건축인 및 관계인사를 초빙,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건축인들의 활동상을 알리므로써, 전북도민들의 건축에 대한

광주 북구청 '광주문화아카데미' 강좌 열

—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김봉렬 교수 초청강좌

광주 북구청은 지난 8월 12일 광주 북구청 앞 평생학습문화센터(2층) 공연장에서 제112회 '광주문화아카데미' 초청강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강좌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김봉렬 교수를 초청하여 '한국건축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김봉렬 교수는 전남 순천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 현재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과 월간 '이상건축'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번 강좌에서 김봉렬 교수는 "과거의 한국건축을 마법과 같은 신비주의



산물로 여기거나 박물관 속의 유물같이 동결된 문화재로 취급하는 한, 한국 건축은 낭만적 회고나 감성적 애정의 대상은 될지언정, 하나의 실체가 아니다"라며 "무엇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으로 볼 것인가라는 점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서석

광주건축사회 고문변호사 윤 춘 주
법무법인 서석 변호사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와 문서에서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전화 화 통화로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취급업무 •

공증, 특허, 상표, 건설, 의료, 행정, 파산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2 범조타운 206호
전화: 062-226-7400 팩스: 062-225-5310
홈페이지: nicelawyer.co.kr/윤변호사.com

건축문화 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신정철 전남회장 김강수 전북회장 이성엽
편집인 박홍근
전담기자 박승근
편집위원 이순미, 서재형, 정태호, 신영은, 박신남, 정명환, 정성호, 송명욱, 김기범, 정영범, 정관선, 박종호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벌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인쇄·제작 삼화문화사 T.062)222-6660
광고신청 T.062)521-0025



표/지/설/명

해야 가을을 그려보지 무엇을 그릴까?
이제 초등학교 및 대학 1학년 미술수업에 들었다
새로운 주황색, 갈색
나뭇잎은 단풍나무, 은행잎, 갈나무잎
과일은 감, 사과, 배, 사과, 마늘
꽃은 코스모스, 국화
동물은 다람쥐, 참치, 쥐
방아놀이는 달, 황금색 달을 가진 양치리
소리는 85
그리고 8월, 9월, 10월
아름다운 풍경은 한 폭의 수채화입니다
우리의 가을이 아름다울수록 더욱 풍요로움을
그려도 됩니다

건축문화 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1만원부터
▶ 후원방식: 신협 131-009-471898 (예금주: 광주건축사회)

정광민 | 건축사사무소 서로 50만원
최경양 | 한샘 건축사사무소 50만원
차은영 | 건축사사무소 시명 30만원
조연수 | (주)현대 건축사사무소 30만원

건축문화 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필/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 (7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 취득, 교수 임용, 인사이동 등 회원동정)

원고마감: 매달 25일
문의: 광주건축사회 (Tel: 062-521-0025)
E-mail: gjkira@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포인트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광주건축사회, 제1기 건축사 Academy 공개강좌 열어

— 제2강좌 : 9/16(목) 15시, 제3강좌 : 10/ 6(수) 15시 예정

광주건축사회에서는 지난 9월 3일, 건축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제1기 건축사 Academy 개강 공개강좌를 열었다.

제1기 건축사 Academy의 첫 강좌는 건축 관련 서적인 '地文'과 '사유'의 저자이자 2011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을 맡게 된 송효상 건축사를 초빙하여 진행하였다.

이날 강좌는 송효상 건축사의 명성을 반영하듯 건축사를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교수, 학생, 일반인 등 약 150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건축사 Academy 류연창 원장은 "제1기 건축사 Academy의 첫발을 내딛는 강좌에 송효상 건축사의 강좌를 진행하게 되어 영광이다"고 밝히며 "향후 이와 같은 일반 강좌가 계속 진행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광주건축사회 신정철 회장은 "우리사회에서 회원들의 경쟁력 제고와 관련분야 지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하여 마련한 건축사



Academy 교육 과정에 많은 분들이 관심과 참여로 빛을 내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고 인사말을 통해 밝혔다.

한편, 건축사 Academy는 이번에 열린 개강 공개강좌를 비롯하여 내년 1월까지 월 2회 격주로 열릴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기 바란다.

날짜	시간	주제 / 강사
9/16(목)	15:00~16:30	건축사 / 송효상 건축사
	16:30~18:00	전문 건축물의 연구 / 이영을 건축사
10/6(수)	15:00~16:30	태양광 / 박운영 / 정병 건축사
	16:30~18:00	디자인정책 변화와 비전 / 이문근 건축사

아시아 문화마루 - 쿤스트할레 광주 개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문화 콘텐츠를 미리 만나 볼 수 있는 아시아 문화마루-쿤스트할레 광주가 지난 8월 31일 광주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개관하였다.

'쿤스트할레 광주'는 건축면적 520㎡(158평) 연면적 1,019㎡(309평)의 수출용 컨테이너 박스로 만든 공간으로서 공간의 형태부터 소소한 이미지를 연출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공간에는 회랑을 따라 소규모 도서실과 교육 공간, 편의시설 등이 들어섰으며 중앙에는 영상, 무용, 소리, 첨단 미디어가 합성된 공연이 열리게 된다.

전시실과 텃밭에서는 첨단과학과 미디어, 컴퓨터를 활용한 국제적인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옥상은 전당의 공사 진행상황을 엿볼 수 있으며 음료를 즐길 수 있는 휴게 공간과 소형 도서관이 있어 세계 각국의 예술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다.

이번 개관행사는 'E-Toy' 그룹 전시로



기획되었다. E-Toy 그룹은 90년대 인터넷 문화 개척자로 사회적 이슈를 예술로 승화시킨 그룹이며, 1996년 '알스 일렉트로니카 골드 니카'를 수상했다. 쿤스트할레 광주에 전시되는 이토이의 주요 작업은 '미션 인터넷' '타타타' '이토이 브루드' '주주가치' 등이다

한편 지난 4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쿤스트할레 광주'의 국문명칭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아시아 문화마루'는 '아시아의 문화교류가 활발히 일어나고 모이는 장소, 교류되는 장소'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곽승국 전담기자 ksk830710@hanmail.net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관련 간담회 및 심포지엄 열려

— '부산국제건축문화제의 현황과 성과'란 주제로 간담회 진행

지난 9월 7일 오전, 라마다프라자 광주호텔에서 문화제운영위원회와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동명대학교 건축학과 조승구 교수의 초청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조승구 교수가 '부산국제건축문화제의 현황과 성과'란 주제로, 부산국제건축문화제의 탄생과 역할, 그리고 방향 및 국제현상공모전을 비롯한 각종 심포지엄 등 다양한 콘텐츠 소개와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하며 진행하였다.

광주건축단체연합회 강남구 회장은 "부산국제건축문화제를 벤치마킹하여 광주만의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가 된 것 같다"



고 말하며 "향후 광주건축·도시문화제가 어느 도시 문화제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초석을 만들 것이다"고 다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광주시 건축주택과 강백룡 과장은 부산국제건축문화제의 소요 예산(안)을 검토하며 "부산시와 실질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는 광주시의 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향후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고 밝혔다.

광주시, 도시디자인 전문가 초청강연회 개최

— 한국색채학회 회장 충남대 이진숙 교수 초청

광주시는 지난 9월 2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도시디자인 전문가 초청강연회를 개최하였다.

도시디자인 아카데미 네 번째 시간으로 마련된 이번 강연은 도시색채분야의 권위자이며 일본 도쿄에서 도시디자인을 전공하고 건축환경계획 박사학위를 받은, 한국색채학회 회장 충남대학교 이진숙 교수의 '인본디자인과 도시색채'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진숙 교수는 이날 강연에 도시의 좋은 이미지를 활용해 관광객을 모이게 하고 있는 파리, 런던, 바르셀로나 등 세계 유명 도시들의 선진사례를 통해



광주는 어떤 방향으로 도시를 가꾸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며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인본디자인 창조도시 광주의 발전 방향과 도시색채의 적용 방안을 들려주었다.

곽승국 전담기자 ksk830710@hanmail.net

— 심포지엄Ⅱ 부산대 건축학과 우신구 교수 초청강연 열려

같은 날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제1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행사 일환인 건축문화 심포지엄Ⅱ가 부산대학교 우신구 교수의 초청강연으로 개최됐다.

이날 강연은 건축사 및 공무원, 교수,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과 함께 만드는 도시'란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부산 광복로 사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부산 광복로는 2004년 문화관광부에서 공모를 통해 전국 최초로 시범가로 지정하여 옥외 광고물, 건축물, 보/차도 시설물 등을 토달 디자인 개념으로 종합 개선하여 세계적인 문화 명물로 조성한 거리이다.

약 2시간에 걸쳐 프로젝트 추진조직과 진행과정, 계획 및 설계 특성 등을 설명하며 열린 강의를 펼친 우신구 교수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은 지자체의 몫이



지만 더 아름답게 가꾸는 일은 주민의 역할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주민이 길을 가꾸는 주체가 되려면 먼저 주민 스스로의 주인 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강연을 마무리 지었다.

한편, 이번 건축문화 심포지엄Ⅱ는 지난 6월 23일, 한양대 토미이 마사노리 교수의 초청강연에 이어 열리게 되었으며, 향후 건축문화 심포지엄Ⅲ은 11월 5일 금요일 15시, 송효상 건축사의 강연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곽승국 전담기자 ksk830710@hanmail.net

News 광주 건축계 동정

- *변경 (상호 및 소재지 변경)**
 - 유승희 건축사 / 원 건축사사무소
 - 광주 북구 문흥2동 1006-1번지 (2층)
- *변경 (소재지 변경)**
 - 박정환 건축사 / (주)성산 건축사사무소
 - 광주 광안구 신가동 972-3번지

News 전북 건축계 동정

- *변경 (소재지 변경)**
 - 방성식 건축사 / 탐 건축사사무소
 - 군산시 산북동 3554-13
- *변경 (상호 및 소재지 변경)**
 - 정석균 건축사 / 정석 건축사사무소
 -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2가 931-6
- *결혼**
 - 이 자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미간사
 - 차녀 - 9월 4일(토)
- *부고**
 - 문종백 건축사 / 서해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8월 28일(토)

- *부고**
 - 최활석 건축사 / 라온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8월 10일(화)

News 전남 건축계 동정

- *입회**
 - 김건용 건축사 / 정민 건축사사무소
 - 전남 광양시 중동 1619-5
- *재입회**
 - 이성진 건축사 / 포커스 건축사사무소
 - 전남 고흥군 고흥읍 옥하리 217-4
- *전입**
 - 양판식 건축사 / (주)유탐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교리 102-11
- *변경 (소재지 변경)**
 - 노경윤 건축사 / (주)토마 건축사사무소
 - 전남 목포시 옥림동 977-1 (3층)
 - 홍성창 건축사 / 홍성창 건축사사무소
 - 전남 해남군 해남읍 수성리 175-11

수필

지난 여름 휴가

박금희
Haworth 이사

1주일이나 되는 여름휴가도 부족하다고 느꼈던 때가 없었지 같은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의 위치가 어느새 휴가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자리에 와 있는 것 같다.

휴가를 가더라도 노트북에 핸드폰, 장소만 바뀌었지 일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더구나 요즘은 스마트폰까지 가세해 내가 어느 곳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지 그와는 상관없이 누군가는 메일을 보내며 확인하려 든다.

어느 대기업 CEO가 진정한 휴가란, '무인도에서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있는 것이 이상적인 휴가'라고 했던 말이 문득 떠오르며 편하게 보냈던 오래 전 여름 휴가 생각이 난다.

일본에서 공부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직장을 들어가니 파릇파릇한 동생뻘 되는 친구들과 동기가 되었다. 그래서 처음 맞는 여름 휴가를 동기들과 함께 내가 살던 동경으로 가기로 하였다. 아마도 그때는 로밍(Roaming)이라는 것이 없었고 그렇다고 공항에서 전화를 빌려주는 서비스도 없던 때라 그냥 고교에서 시간을 정해두고 만나기로 하였다.

우리는 동경에서 가장 상징적이면서도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 만나기 쉬운 것 같은 고교(皇后, Imperial Palace)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아마도 그때는 로밍(Roaming)이라는 것이 없었고 그렇다고 공항에서 전화를 빌려주는 서비스도 없던 때라 그냥 고교에서 시간을 정해두고 만나기로 하였다.

내가 고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5시경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약속 장소에 동기들은 보이지 않고 웅성되는 일본인들과 경찰들이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모여있는 것이 보였다.

처음에는 그냥 무언가 있나 보다 하여서 무심코 지나쳤는데 동기들은 오지 않고, 또 모여있는 사람들이 궁금하여 기웃거리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들이 경찰들과 얘기 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자세히 보니 만나기로 한 동기들이 손짓발짓으로 무언가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끼어도 되지 몰라서 머뭇거리다가 말을 건네었더니 동기들은 화색이 돌아 무슨 구세주라도 만난 듯 나를 반기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 옆에 있던 경찰들은 또 일본어로 설명하는데 온 화살이 나한테 쏟아지는 기분이었다. 뭐가 뭔지 들리지도 않고 참피하기는 하고...

동기들 말을 종합해보니 비행기가 도착하고 고교에 와보니 시간이 많이 남아 구경을 하고 싶은데 가져온 배낭이 문제였다고 한다. 그래서 나의 똑똑한(?) 동기들은 배낭을 고교에 있는 어느 건물 앞에 두기로 결정하고 그 친구들 생각에는 일본 사람은 자기 물건 아닌 것에 손을 대지 않는다 라는 것을 어딘가에서 들은 터라 최소한의 Notice로 배낭에 수첩에서 찢은 종이를 'I'll be back soon'이라고 적어두고 구경을 한 모양이다.

그렇게 구경하다가 돌아와 보니 동기들 가방이 폭약인 줄 알고 경찰에 사복경찰, 폭약 전문반까지 와서 체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에 내 동기들이 나타났으니 가방을 폭약으로 추측한 경찰에게 동기들은 영어로 설명하고 경찰은 일본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대화가 통하겠는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된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이없는 상황이고 그 당시에 가방을 두고 구경 하러 간 동기들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순진한 일본 경찰들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요즘 같은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무슨 테러리스트쯤이나 되지 않나 하는 오해를 받아 더 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싶다.

사복경찰과 폭약제거반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오해가 풀려갈 즈음 경찰 제복이 예쁘다며 옆에서 사진 찍던 내 동기들의 철없던 모습이 지금도 나를 웃음 짓게 만든다.

이제는 그 동기들이 뿔뿔이 흩어져 각자 다른 길을 가고 있지만 유난히도 무더웠던 이번 여름의 끝자락에서 니만의 여유로운 여름 휴가를 상상해 본다.

세무상식

박미연
박미연 세무사사무소 대표

부부등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양도 시 절세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 지상권등) ○주식 또는 출자지분 기타자산(영업권, 골프회원권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과세대상 자산을 팔았을 때 받은 양도가액에서 구입에 따른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장기보유 특별공제등을 차감한 양도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현행 양도소득세 세율은 과세대상 자산별로 규정되어 있고 보유기간, 보유현황, 등기 여부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는데, 부동산을 취득하여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6 ~ 3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공동명의로 각각에 대해 별도로 계산 됨에 따라 단독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비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단독 명의로 취득한 상가를 2년 이상 보유한 후 2010년 9월에 양도(양도소득금액이 1억5천만 원)할 경우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36,434천 원이지만, 취득시 공동명의로(각각 1/2 지분)로 하면 두 사람이 부담할 양도소득세는 23,778천 원으로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이 12,656천 원 절세할 수 있다.

또한, 자산을 취득할 때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는 것보다 분산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면서, 상속인의 수나 유산의 배분 내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과세기준으로 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상속세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다만,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하며,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 이내에 증여한 합계금액 6억 원 한도내에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3천만원(미성년자는 1천5백만 원)한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Book



나를 심은 사람

장 지오노 작 / 김경은 역 / 미아를 레카디 문화작 / 출판사 두레

박지영

(주)건축사사무소 제이원



이 책은 나무를 심은 사람에 대한 글과 작가에 대한 글이 주를 이루고 있다.

작가 장 지오노는 어느날 오토 프로방스 지방을 여행하다가 한 특별한 사람을 만났다. 혼자 살면서 여러 해에 걸쳐 끊임없이 나무를 심고 있는 양치기였다. 그는 묵묵히 해마다 나무를 심고 가꾸고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다. 이 소설은 어느 소박하고 겸손한 사람이 지구의 표면을 바꾼 실제 이야기를 문학 작품으로 만든 것이다

엘제야르 부피에는 3년 전부터 이 황무지에 홀로 나무를 심어 왔다. 지난날 그는 평야지대에 농장을 하나 가지고 자신의 꿈을 가꾸며 살았다.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

고 나서 아내마저 세상을 떠났다. 그 뒤 그는 고독 속으로 몰려나 양과 개와 더불어 한가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나무가 없기 때문에 이곳의 땅이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달리 해야 할 중요한 일도 없었으므로 이런 상태를 바꾸어 보기로 결심하고 나무를 심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는 50대에 시작해서 죽는 순간까지 황무지에 끊임없이 희망을 심었다

이 나무가 세상을 구하고, 사람의 마음을 평화하고, 살기좋은 세상으로 살아가게 하는 희망의 근원인 것이다. 부피에는 1947년 바농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부피에의 이런 삶은 지오노의 친구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지오노의 글로 인해 수많은 영화, 애니메이션으로 재 탄생 하게 되었으며 많은 상을 받게 되었다.

이 글은 많은 이들의 교훈의 대상이 되었으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는 유명한 작품이다.

건축사 Gallery



칠선계곡용소

53 x 40.9cm 캔버스위 유화

안단테 모데라토 알레그로 그 붓길따라 칠선계곡 용소에 선녀와 유희하다 캔버스위엔 여름날의 에메랄드빛 추억이 남다 -칠선계곡 스케치중-

임정구 건축사 작

Photo



소경(韶景)

유난히도 후덥지근하고 비도 많이 오던 여름날이었다. 그날도 장대비가 왔다. 비가 내린 후 맑게 갠 하늘을 본다. 가을이 오는 길목이려나. 질푸른 연잎위에 밤사이 활짝 핀 연꽃이 가을바람에 춤을 춘다.

촬영지: 광주 서구 매월동 전평저수지

촬영: 박종호 건축사 기자



품질경영시스템 ISO9001 획득
기술혁신 중소기업 (INNO-BIZ) 인증
벤처기업 등록

www.bs-base.co.kr

탄탄하고 경제적인 기초공사 - 반석기초이앤씨(주)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팽이기초공법 (6연식형 / 현장타설형)

팽이기초공법
6연식



동신고 체육관

팽이기초공법
현장타설형



잠신 중학교



군산인력개발원



전남대 학군단



105 포병대대



서정동 주민센터

마이크로파일 공법



장성 문화예술회관



연천초

그라우팅 공법



반석기초이앤씨(주) 대표이사 문 형 록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487-1 아이비타워 108호 TEL. 031) 577-1673 FAX. 031) 577-1674

무등의 비로와
1등의 마음으로
세계를
!



알고 계셨나요?

삼성 시스템에어컨(천정형)은 우리고장 광주삼성전자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삼성광주전자주식회사는 1989년 광주 하남산업단지에 설립된 광주지역 독립법인입니다. 2조원 규모의 호남제일기업으로서 고용인력증대 및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있으며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장애인 지원 등 다양한 사회복지활동 및 광주광역시로부터 환경친화 기업으로 선정된 삼성광주전자는 인간의 생명과 자연을 보호 한다는 신념아래 전자녹색경영을 통한 자연과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하남산업단지 내 삼성광주전자



저렴한 유지비 + 인테리어까지 생각한 1:1 맞춤바람은
오직 **내고장 광주기업 삼성 시스템에어컨(천정형)** 뿐입니다.



B2B 서부 1지점 관할 전문점

(유)삼성무동특판 062)365-6900	(유)에이원공조시스템 062)681-8504	순천 동부이앤에스(주) 061)722-0850	전남지역 나주 (주)하이옥스 061)336-0071~2
(주)센도리 062)268-5811	(주)오성에어텍 062)971-7742	순천 티에이에스(주) 061)721-4798	전주 디지털공조 063)277-7999
광주지역 (주)한국엘이씨 062)521-2341~2	(주)삼성공조시스템 062)952-0048	전남지역 여수 삼성냉열시스템(주) 061)653-2025	전주 (유)삼성에스에이비공조 063)226-0419
(주)에이원비 062)603-4787	그린공조시스템 062)385-7300	광양 (주)디에스시스템 061)795-6631	전주 (유)일신공영 063)212-9131
(유)하우원공조시스템 062)511-0006		목포 (주)한빛시스템 061)247-9500	전주 (유)정연엔지니어링 063)244-7777
			군산 (유)삼성특판공조 063)451-7800
			익산 (유)한국설비 063)832-7152
			익산 두일공조시스템(주) 063)841-5800
			익산 삼성동생에어컨(주) 063)855-8700